

事務自動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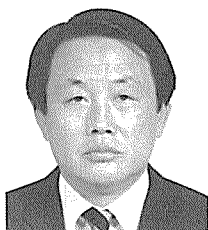
새로운 낱말이 매일같이 생겨난다. 대개가 약자나 머릿글자로 표시되니까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당황할 때가 있다. OA(사무자동화)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타자기, 복사기, 팩시밀리, 워드프로세서, OCR, 퍼스컴등은 대개 다 아는 것이고 최근에는 전자사서함, 전자파일(文書綴) LAN(구역내통신망) VAN(부가가치통신망) CD-ROM 워크스테이션등의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첨단 기술과 통신혁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주력하여 복합적 다기능 정보시스템을 지향하는 이른바 제2차 OA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는 OA란 어떤것인가. 흔히 자기 입장에서만 OA를 해석하는 경우를 보는데 간단한것같으면서 복잡한 것이 OA이며 자칫 소경이 코끼리만지는 과오를 범하기 쉽다.

사무내용을 조사분석한 외국의 한연구결과에서는 사무라는 것을 創造的 일(Creation), 작성·형성하는일(Capture), 전산기 입출력(Key Boarding) 보관·검색(File-Retrieval)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이 분석도 사무내용의 기능상의 분류에 불과하다. 사무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규설
한국전자사무기기 사장



그러면 自動化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진행돼야 하는 것일까. 붓대신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전화나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일까. 문서관리에 컴퓨터나 마이크로필름을 사용하는 것일까.

대답은 모두가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보면 모두가 꼭 옳은것만은 아닌것 같다.

왜냐하면 완전한 이상적인 OA란 모든사무를 자동화하는것인데 앞서의 OA는 단순한 기능만 기계로 대체한 셈이니 통괄적종합시스템을 지향하는 OA의 입장에서는 정해가 될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한 OA는 가능한 것인가. 유감이지만 현재에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OA는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다. OA의 불변의 목적은 능률과 생산성향상이기때문에 不斷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단, 자기페이스에 맞게 추진하는 자세라야만 OA의 목적에 보다 가까와 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